



 youtube.com/forestgokr
 instagram.com/forest_korea
 facebook.com/forestkorea
 twitter.com/forest_news



지금, 감각의 스위치를 켜고
숨명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세요.



코끝에 스치는 숲의 향기

큰 호흡으로 숨을 모두 비운 후
잠들어 있던 후각을 깨워 공기마저
가벼워질 만큼 상쾌한 숲 내음을,
비 온 뒤 피어 올라오는 흙의 향기를 맡아요.

맡아보세요.

CONTENTS

06

숲의 선물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숲의 향기에 취하다
- 숲의 선물, 피톤치드

08

숲의 초대

숲 향기에 이끌리고, 매혹되고, 사랑에 빠지다
- 역사 속에서 발견한 숲의 향기

12

숲의 만남

삶을 위로하는 인생의 향기를 찾아서
- 대한민국 1세대 조향사, 정미순



18

어떤 정보

바로 우리가 피톤치드 나무들
- 특별히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하는 수종은?

20

나를 부르는 숲

공기마을 치유의 숲 피톤치드에 흠뻑 빠지다
- 전북 완주 공기마을 편백나무숲

26

트렌드의 숲

촌스러운 것이 가장 힙한 것!
당신을 시골살이로 초대합니다
- 러스틱 라이프





48

숲속 우체통

50

숲이 전해온 소식

30

브런치@숲

아삭한 식감이 풍미를 더하는 죽순 브런치
- 죽순 주먹밥 & 죽순 샐러드

34

숲 크리에이터

일러스트레이터의 눈으로 재해석한 숲의 세상
- 단팔소보로

38

에코 프로젝트

음식도 업사이클링이 되나요?
- 칼로리는 낮고 영양은 더 좋은 리하베스트

42

숲의 내일

우리가 산불을 막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
- 산림청 산불진화대의 활약상도 만나보세요!

46

콘텐츠의 숲

다큐멘터리, 독립영화로 숲의 소중함을 되새기다
- 내 방에, 혹은 극장에 앉아서 즐기는 숲 다큐



www.forest.go.kr

이번호 〈Magazine 숲〉을
휴대 기기에서도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Magazine 숲〉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 문화 전문 매거진입니다.
〈Magazine 숲〉은 한국 간행물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Magazine 숲〉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
할 수 없습니다.

발행일 2023년 5월 26일 발행 산림청
기획 산림청 대변인실
magazinesup@korea.kr
T. 042.481.8843
편집·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숲 향기에 이끌리고, 매혹되고, 사랑에 빠지다

역사 속에서 발견한 숲의 향기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역사 속에서는 사람들이 숲의 향기에 매혹되고 즐겼다는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맨 처음 기록을 찾아보자면 무려 이집트 파라오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료나 고고학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고대부터 애향관습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향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동서양이 다르지 않았다. 주로 종교의식에서 제례의 한 부분으로 활용되었던 숲의 향기는 약재로도, 입욕제로도 사용되며 사람들의 삶을 운택하게 해왔다.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숲의 향기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본다.

Kyphi



Hungary W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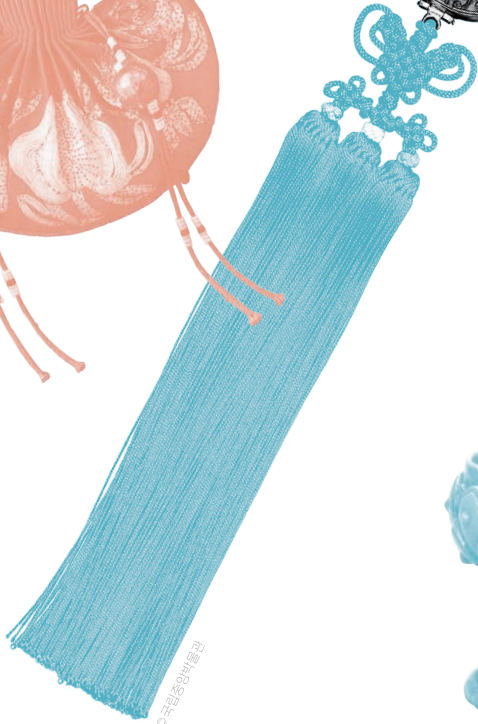
파라오 시대부터 19세기까지, 서양 향료의 역사

향수는 인류의 역사에 언제 등장했을까? 일반적으로 향료의 역사는 인류가 불을 사용했을 때부터였을 거라고 짐작한다. 인류의 조상들은 나무나 나뭇가지, 열매 등으로 불을 피웠고 이때 나왔던 연기와 향을 신과의 매개체로 생각했던 것 같다.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 perfume을 살펴봐도 그 느낌을 알 수 있는데 perfume은 라틴어로 'per, 통하여'라는 뜻과 'fumme, 연기'가 합쳐진 말이다. 향료에 대한 기록은 이집트 피라미드 벽에서 등장한다. 당시 인기가 있었던 향수는 키피(kyphi), '신들에게 환영합니다'라는 뜻이다. 키피는 꿀, 유향, 마스틱, 젖, 소나무 커널, 사이프러스 크리스, 카멜 잔디, 시나몬 등을 베이스로 개발되었다. 이집트가 로마에 정복당한 후에도 키피의 인기는 여전했다. 로마 시절에는 병사들이 투구 안에 넣어두고 다닐 정도로 퍼졌으며 귀족들에 의해 목욕탕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다. 다만 이때까지의 향료는 고체 형태의 향료였다. 향료가 지금처럼 액체 상태로 변화하게 된 것은 이후 여러 형태의 변화를 거듭한 결과이다. 최초의 알코올 향수라고 할 만한 헝가리 워터는 1370년에 헝가리 왕비에 의해 개발되었고 1656년에는 루이 14세가 유럽 최초로 향수 길드를 인정하면서 프랑스 중심으로 향수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알코올에 향료를 2~7% 용해하여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던 향수는 1709년 독일 쾰른에서 요한 마리아 파리나에 의해 발명되었다. 현재 우리에게도 익숙한 '오데코롱(Eau de colonge)'이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로 '쾰른의 물'이라는 뜻이다. 이로써 19세기 들어서 귀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향수는 대중화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오늘날 향수 문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Sachet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Censer

우리나라 역사 속 향료의 기록은?

한편 우리나라 역사에는 언제부터 향료가 등장했을까? 그 시작을 따지자면 단군신화까지 불러와야 한다. 단군신화에 의하면 단군의 첫 주거지는 태백산 꼭대기 단수(檀樹) 아래라고 전해진다. 여기서 단(檀)은 오늘날의 향나무를 의미하고 이는 그윽한 향기가 나는 나무로 신성시되기도 한다. 향료를 사용한 것이 기록으로 남은 사례는 삼국시대부터이다. 기록에 따르면 역사 속 인물 김유신은 향불을 피워 하늘에 맹세를 했다고 하고 진지왕은 도화녀와 7일간 방에 머무르는 동안 향을 살랐으며 눌지왕은 향으로 공주를 치료하기도 했다고 한다.

향로 사용 관습은 벽화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고구려의 쌍영총 고분 벽화를 보면 맨 앞에 가는 소녀가 향로를 머리에 이고 가고 있다. 석굴암 벽 둘레에 새겨진 지혜제일 사리불과 신통제일 목련은 손잡이 향로를 들고 있고 비암사사유반가석상의 반침은 둥근 단지의 향로다. 이뿐인가? 삼국시대 소형 향유병도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볼 때 삼국시대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향료를 사르고, 주머니에 담아 지니며 향을 애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애향관습은 고려시대에도 이어지는데 1123년 고려에 온 서경(徐兢)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의하면 귀부인들이 비단 향낭을 차고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향의 해외 교역도 활발했는데 이로 미루어보아 고려의 향유 제조기술과 향료에 대한 감각이 주변 다른 나라들보다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애향관습은 이어져 향료에 향연을 피워올렸으며 향낭을 웃고름이나 허리춤에 찼던 것으로 보인다. 선비들도 향을 몸에 지녔는데 가장 손쉽게 만들었던 방법은 늙은 소나무와 잣나무 뿌리, 가지, 잎과 열매를 절구에 찼어 소나무 진에 섞어 응고시키는 방법이었다.

이처럼 우리는 대대로 향기를 사랑해왔던 민족이다. 다만 현대의 향 산업이 서양에 비해 발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강한 인공조합향 보다는 은은한 자연의 향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알코올에 향료를 용해시키는 기술이 서양보다 조금 늦게 발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역사를 살펴보면 서양에서도 향료를 동양에서 수입해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동양은 우리나라와 중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향에 대한 관심과 제조기술이 발달되어 있었던 것이다. 향기 산업이 더욱 발전하여 우리의 후각에 더욱 잘 맞는 은은한 향기가 또 하나의 한류가 되어 세계를 매혹하게 될 날을 기다려본다. ☺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대대로 향기를
사랑해왔던 민족이었다.



Oriental Scent



Perfumer

© Eunju Cha

뛰어난 후각에 대해 말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전문가, 바로 우리나라 1세대 조향사인 정미순씨다. 무려 2,000여 개의 향을 구분할 수 있다는 그는 현재도 갖가지 물질을 조합하여 새로운 향을 탄생시키고 있다. 2002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벌써 20여 년 향기를 일생의 동반자로 삼아 살아온 그의 이야기를 듣고 최고로 생각하는 숲의 향기는 무엇인지, 숲 향기의 어떤 점에 매료되는지에 대해 들어보기로 한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지엔퍼fum

삶을 위로하는 인생의 향기를 찾아서

대한민국 1세대 조향사, 정미순

Jeong
Misoon

대한민국 1세대 조향사, 정미순. 그녀의 인생 향기는?

중학교 때 에스테로더 여사의 전기를 읽고 감명받았던 소녀는 훗날 대한민국의 향기 산업을 이끄는 1세대 조향사가 되었다. 지엔퍼퓸 향수 회사와 지엔퍼퓸 & 플레이버 스쿨, 공방, 향수 박물관인 뮤제 드 파팡까지 바쁘게 운영하고 있는 정미순씨. 20여 년 전 조향사가 된 후 한 길을 걸어온 그녀에게 인생 향기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조향사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졸업 후 3년 정도 프랑스 조인트 벤처 회사에서 일을 했고요. 그때 프랑스로 연수를 가게 되었죠. 당시 우리나라는 해외 출장도 쉽지 않았던 상황 이었고 향수도 수입하기 전이었어요. 연수를 받았던 곳이 본이라는 자그마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프랑스라서인지 향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묵었던 집에서 나던 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향을 접하다 보니까, 아! 내 꿈이 조향사였지, 라는 생각이 다시 들더군요. 잃어버렸던 꿈을 되살려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돌아와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지요. 당시에는 그게 무슨 향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바이올렛향이었던라고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바이올렛향이 저를 조향사로 이끈 거죠.”

무엇이었는데도 몰랐던 향기에 이끌려 다시 조향의 길로 들어섰다는 정미순씨. 향기를 맡으며 새로운 꿈을 꾸는 것도 놀랍지만 몰랐던 향을 기억해 나중에 그 이름을 찾아냈다는 것도 놀랍기만 하다.



1
정미순 조향사가 운영하는
향수박물관, 뮤제 드 파팡.
이외에도 그는 지엔퍼퐁 향수
회사와 지엔퍼퐁 & 플레이버
스쿨,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2
최근에는 우울감, 불면증
등을 개선하기 위해 숲속
향이 많이 사용되는 추세다.

**숲의 향기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치유의 효과를 준다.
신체뿐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는 것이다.**

그렇게 20여 년을 보낸 그녀는 좋은 향에 대한 원칙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 좋은 향은 물리적으로 밸런스가 좋아야 하고, 생리적으로 머리가 아프지 않아야 하고,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개인적으로 끌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향기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에게 특별히 이끌리는 작용을 한다. 영혼을 울리는 것이다. 영혼을 울리는 작용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서일까? 팬데믹 기간 향기 산업에 대해 묻자 의외의 답이 돌아온다. “팬데믹 기간 다른 산업들은 약간 주춤했다면 향기 산업은 오히려 성장세를 보였어요. 인터넷 시장을 봐도 다양한 향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수입 시장보다 로컬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이런 변화를 이끄는 것은 젊은 세대들인데요. 나도 모르게 느끼는 마음속 공허함이 무의식적으로 향을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향은 그 텅 빈 마음을 채워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힘들었던 시기에 향기는 위로와 위안을 주는 친구 같은 존재였는지도 몰라요. 한 가지 기존 세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이 친구들이 브랜드보다 향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산업에서 문화로 향기가 전이되고 있는 거죠.”

숲의 향기가 주는 치유의 효과

본격적으로 숲의 향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했다. 숲의 향기를 느끼게 하는 소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숲속에서 나는 전반적인 향도 있고 나무향, 풀향, 꽃향, 이끼향, 흙냄새, 피톤치드향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욱더 다양해진다. 나무만 해도 대나무향, 시더우드라 불리는 삼나무향, 편백나무향, 소나무향 등등으로 나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향들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효과도 주고 치유의 효과도 준다. 신체뿐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는 것이다. 정미순씨도 3년 전 제주로 이사한 후 그 치유효과를 제대로 맛보고 있는 사람 중 하나다.

“제주에는 향수로 유명한 프랑스 그라스 지방과 굉장히 유사해요. 제주에 공방을 내고 싶어 출장 차 와봤다가 눌러앉았죠. 아침에 일어나 산책도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근처 오름이나 한라산도 가고, 정원에서 허브와 나무도 가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제주를 올 당시만 해도 체력도 약해지고 향을 많이 맡아서인지 호흡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숲속을 걷다 보니까 많이 회복되었어요.”

최근에는 우울감, 불면증 등을 개선하기 위해 숲속 향기가 많이 사용되는 추세다. 향기요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향이 주는 생리적 효과를 이르는 말이다. 향기는 신경에 작용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호르몬 등의 내분비계를 정상화해 주기도 한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산에 가서 치유되는 것도 바로 이런 향기 효과 때문이다.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어떤 성분이다,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향이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에 작용한다는 데이터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숲의 향기,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는 그녀, 그래서인지 목소리에서 자연의 생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다.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삶

제주에서 그녀는 다양한 천연 원물들을 이용해 새로운 천연 조향도 시도하고 있다. 물론 합성향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원물은 공급에 한계도 있고 퀄리티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 합성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대다수의 합성향은 천연에서 발견되는 성분들로 화학적으로 제조를 하기 때문에 같은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천연 원물을 이용하면 향적으로 유효한 성분 외에도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다른 성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추출할 수 있어 더 선호한다.

“제주에 와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물리적으로 천연 향을 추출해보고 있어요. 최근에는 비자나무향에 도전했는데요. 비자나무는 제주에서 보호받고 있는 식물이라 비자나무를 키우는 분의 도움을 받아 시도할 수 있었죠. 저는 수증기 증류법을 활용했

는데요. 찜통에 재료들을 넣고 끓이면 증기가 나오잖아요? 원물의 향 성분들이 함께 나오는 증기를 한곳에 모은 후 분리하는 작업을 통해 향을 얻어내죠. 실제로 향은 잘 나오지 않았고 원물의 향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추출하는 과정에서 향을 충분히 맡았기 때문에 그 이미지로 재창조할 수 있었어요.”

정미순 조향사는 작은 정원도 꾸리고 있다. 처음 제주에 내려오던 해 산림마트에서 샀던 꼬챙이처럼 작은 나무들이 이제는 제법 커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블루베리, 레몬나무, 무화과, 사과, 꾸찌병 등의 유실수들과 바질, 고수, 라벤더, 로즈마리 같은 허브 작물들이 그녀의 정원에 향기를 더하고 있다. 게다가 굴밭 한가운데 있는 집에서는 사시사철 향긋한 굴향을 맡을 수 있다. 향을 조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실험실은 없을 듯 하다.

“무슨 향이 되었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회복시켜주는
인생 향기를 하나씩 찾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컨트롤되지 않을 때도 향기를 맡으면
좋거든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뿐, 향기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3



4



최은정 ③

인생 향기를 하나씩 찾아보시길

제주로 옮겨온 향수 박물관, 뮤지엄 파파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곳은 향의 역사와 향의 뿌리를 찾아가는 공간이다. 말린 재료들, 향수의 원물도 만날 수 있고 조향사가 직접 수집한 수많은 빈티지 향수들도 볼 수 있다. 이곳에 들러 향기를 맡다 보면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향기에 취하게 되며 동시에 나에게 맞는 향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도 불쑥 떠오를 것이다.

“사실 향기에 대한 선호도는 사람의 체질이나 유전자에 따라 달라져요. 육식을 하는 서양인은 무거운 향을, 채식을 하는 동양인은 가벼운 향을 좋아하죠. 한국에서 살 때는 그냥 가볍고 신선한 시트러스 계열의 향을 좋아했던 젊은이가 유학을 가서 햄버거를 먹고 육식을 많이 하다 보면 애니멀릭한 향을 선호하는 취향으로 변화하기도 해요. 그 향이 무엇이 되었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향을 하나씩 찾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뿐, 향기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거든요. 마음이 스스로 컨트롤되지 않을 때도 향기를 맡으면 좋아요. 향이 주는 위안이 크거든요.”

인터뷰가 이어지는 내내 정미순 조향사의 조근조근한 말투에서 어떤 향기가 전해져 오는 듯 했다. 편안하고, 시원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숲을 닮은 향기가. ☁

3
제주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물리적으로 천연향을 추출해보는 데도 도전하고 있다.

4
향기에 대한 선호도는 그 사람의 체질이나 유전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Forest Bathing

바로 우리가 피톤치드 나무들

특pecially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하는 수종은?

글 매거진 숲 편집실



편백나무 피톤치드의 제왕

편백나무는 100g당 발산하는 피톤치드양이 가장 많은 수종으로 집이나 사찰 등 건축물의 재료가 되어 왔고 최근에는 가구, 탈취제, 디퓨저 등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다. 편백나무향을 맡으면 코르티솔의 혈중농도를 절반 이하로 줄여주어 스트레스 해소와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아토피의 원인인 집먼지진드기를 억제하고 살균, 소독 작용도 하여 암 환자나 피부질환 환자들이 즐겨 찾는다.



소나무 놀라운 살균, 소독효과

우리나라 대표 수종인 소나무도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해주는 고마운 나무다. 2015년 산림치유연구사업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자생 소나무가 일본 원산 편백나무보다 피톤치드 분비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소나무의 정유는 뛰어난 살균효과와 소독효과, 데오도란트효과가 있다고 한다. 뒷산에만 가도 흔히 만날 수 있는 우리나라 자생 소나무로 풍부한 피톤치드를 만나보도록 하자.

with Phytoncide

피톤치드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숲에, 모든 순간에 피톤치드가 똑같이 발산되는 것은 아니다. 겨울보다는 여름이, 밤보다는 낮이, 산 아래나 정상보다는 산 중턱이 삼림욕에 좋은 이유도 바로 이 피톤치드의 발산량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종은? 당연히 나무의 종류에 따라 발산하는 피톤치드의 양도 달라진다. 어떤 숲에 가야 피톤치드를 더 많이 마실 수 있는지, 피톤치드 나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삼나무 심신 안정에 도움

껍질을 벗기면 깊고 신비로운 냄새가 나는 삼나무. 흔히들 삼나무 냄새는 흙냄새와 비유해 묘사되곤 한다. 수백, 수천 년을 사는 수명이 긴 나무로 고대시대부터 방부제로, 향수로, 해충기피제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잎이나 가지가 아니라 목질부에서 추출되는 정유는 심신 안정과 호흡기 질환 치료, 근육통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다만 꽃가루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2~4월의 삼나무 숲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가문비나무 감각기능의 회복

해발 500~2,300미터 높이에서 자라는 가문비나무는 지리산과 덕유산, 설악산 등 주로 높은 산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고산지대 나무다. 향은 소나무와 비슷하지만 더 짙고 흙냄새가 강하게 난다. 향 치료사들에 의하면 섬세한 감각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나무라고도 하고 접지효과, 즉 땅의 강력한 치유 전자파를 받을 수 있는 나무라고도 한다. 삼림욕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공기마을 치유의 숲 피톤치드에 흠뻑 빠지다

전북 완주 공기마을 편백나무숲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공기마을. 알고 보니 마을 생김새가 꼭 밥공기를 닮았다고 해서 공기마을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밥보다도 맑은 공기가 더 절실해진 세상 아닌가. 공기가 좋아 공기마을이라고 널리 알려도 좋지 않을까. 실제로 상관면 공기마을에는 주민들이 직접 땀 흘려 가꾼 대규모 편백나무숲이 있어 사시사철 맑은 공기가 마을의 큰 자랑이니 말이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신중식





공기마을에 들어선 첫 느낌. ‘아, 조용하다...’ 너무 조용해 감탄이 나온다. 인가도 많지 않고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집집마다 뜨락에 봄꽃이 피어 있고, 하늘엔 호르르 새소리, 개울엔 졸졸 물소리... 그렇다. 그것뿐이다. 귀를 피곤하게 하는 어떤 소리도 없다. 세상에,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지지 않는가. 소음에서 벗어남이 힐링의 시작임을 깨닫는 순간이다.

조용한 마을에서 만나는 깊은 치유의 숲

이 조용한 마을을 통과해 끝까지 들어가면, 마을 뒷산에 조성된 무려 86만㎡에 이르는 편백나무숲을 만나게 된다. 다른 편백나무숲에 비해 덜 알려진 곳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인위적인 꾸밈이 적어 자연스러움과 원초적 생명감이 느껴진다. 게다가 숲길을 걸을수록 넓고도 깊은 편백숲의 규모에 놀라게 된다. 모퉁이를 돌고 돌아도 길은 구불구불 끝없이 이어지고, 산자락에 운동 수직으로 짝 짝 뻗은 편백나무들이 뻗뻗하게 숲을 이루어 하늘이 안 보일 지경이다. 숲 한 가운데에는 삼림욕장도 마련되어 있어 나무 데크에 자리

잡고 느긋하게 쉬어갈 수도 있다. 침엽수 중에서도 편백나무는 특히 은은한 향이 좋을 뿐 아니라 피톤치드(phytoncide)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편백숲을 걸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장과 심폐기능이 강화된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게 편백숲이 내뿜는 피톤치드에 하염없이 온 몸을 내맡기고 있다 보니 세포 하나하나가 말갭게 씻어지는 느낌. 말 그대로 치유의 숲이다.

편백나무숲을 걷는 코스는 산책로, 오솔길, 등산로 세 가지

‘편백숲관광안내센터’에서 시작되는 공기마을 편백나무 숲길에는 세 가지 코스가 있다. 첫째는 산책로, 둘째는 오솔길, 셋째는 등산로이다.

첫째, 산책로는 편백숲의 주 코스로 왕복 7.2km의 완만하고 널찍한 길이다. 편안하고 여유롭게 숲길을 즐기기에 최적의 코스라 온 가족이 함께하기에 좋다. 반환점인 3.6km 지점에 마련된 정자에서 잠시 쉬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2~3시간가량 소요된다. 도중에 통문이 있는 지름길로 해서 내려오면 좀 더 시간을 단축할



2

수도 있다. 산책로는 전라북도가 선정한 명품 걷기 코스인 '전북 천리길'의 일부이기도 하다.

다음은 2km 남짓한 오솔길이다. 산책로 시작점에서 300~400m 쯤 가다가 왼쪽 데크길로 올라서면 된다. 이 오솔길 코스는 산책로 보다 좀 더 산의 위쪽 경사면을 걷는 코스인데, 길도 좁고 오르막 내리막이 꽤나 있어 거의 등산로에 가깝다. 산책로가 편안하게 숲의 여유를 즐기는 길이라면, 오솔길은 더 깊이 숲의 내밀한 속으로 들어가 아릅드리 편백나무를 안아보기도 하고 수피(나무껍질)를 만져볼 수도 있는, 약간은 탐험과도 같은 길이다. 산책로는 구두를 신고 갈 수도 있지만 오솔길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신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등산로는 마을 뒷산인 옥녀봉(578m)이나 한오봉(570m)을 올라 능선을 타는 것이다. 산책로나 오솔길을 가다가 중간에 연결되는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된다.

세 코스 중 어떤 길로 가든 편백숲이 내뿜는 피톤치드를 넘치도록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탐방객들은 큰길인 산책로로 걷는다. 아무래도 더 안전하고 여유롭기 때문이다. 산책로에는 여기

**공기마을 편백숲길은 산책로,
오솔길, 등산로 등 세 가지 코스.
어디로 가든 편백숲이 내뿜는
피톤치드를 넘치도록 누릴 수 있다.**

1
공기마을 편백나무 숲.
한가운데 삼림욕장도
마련되어 있고 나무데크에
자리 잡고 쉬어갈 수도 있다.

2
편백나무 숲길을
걸을수록 넓고도 깊은
숲의 규모에 놀라게 된다.



저기 벤치가 있어서 앉아 쉬기도 좋고, 대화를 나누거나 간식을 먹기도 좋다. 맑은 공기, 새소리, 물소리, 철 따라 피는 각종 야생화들... 그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의 시간이 될 것이다.

47년 전 조성된 숲이 이제 힐링의 명소로

공기마을 편백나무숲은 1976년, 정부의 산림녹화사업으로 조성되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10만여 그루의 편백나무를 비롯해 잣나무, 삼나무, 낙엽송, 오동나무 등을 심고 가꾸어 오늘날까지 사시사철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을 이어오고 있다.

이 숲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9년 당시 소방주상관 면장이 나서서 희망근로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책로와 쉼터, 주차장을 마련하면서부터라고 한다. 사유지로 30년 이상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편백나무숲을 토지 주인의 승낙을 받아 지금처럼 걷기 좋은 곳으로 가꾸었다고 하니, 토지 사용을 허락한 주인과 마을 주민들이 상생으로 이루어낸 아름다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 후로 공기마을 편백나무숲이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2011년 개봉된 영화 <최종병기 활>이 이곳에서 촬영된 것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찾는 힐링 명소가 되어가고 있다.

잠시나마 나를 돌아보고 비워기는 시간

산책로를 건다가 오솔길로 접어들어 끝까지 갔더니 다시 산책로로 이어진다. 계속 걸어가니 반환점이 나오고, 거기에 정자가 있어 잠시 앉아 쉬면서 하늘을 본다. 구름이 무심히 지나간다. 따그르르르... 어디선가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아댄다. 참 얼마 만에 들어보는 소리인지. 그 세월 동안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무엇을 이루었으며 무엇을 잃었는가. 아직도 비우지 못해 마음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알 듯 모를 듯, 답이 금세 떠오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잠시나마 나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쉽이요 힐링이요 비우는 과정일 것이다.

수많은 돌탑들이 있는 곳을 지나 원점으로 돌아온다. 쉼터 근처에 마을 주민들이 설치한 족욕탕인 유황편백탕이 있다. 실제로 유황이 섞여 있고 물이 시원하여 발의 피로를 풀기에는 그만이다. 숲과 공기, 거기에 시원한 물까지 모든 것이 보물과도 같은 길. 울창한 편백나무 덕에 한여름에도 서늘하기 이를 데 없으니 피서지로도 그만이다. 힐링 피서, 얼마나 좋은가.

도시의 경쟁과 소음과 탁한 공기에서 지친 분이라면 완주 공기마을 편백나무숲을 꼭 한번 찾아보시길. 상큼한 피톤치드향에 심신을 맡기고 하염없는 힐링의 시간을 가져 보시길. ☁

3 산책로와 오솔길, 수많은 돌탑들이 있는 곳을 지나 원점으로 돌아온다.

4 침엽수 중에서도 편백나무는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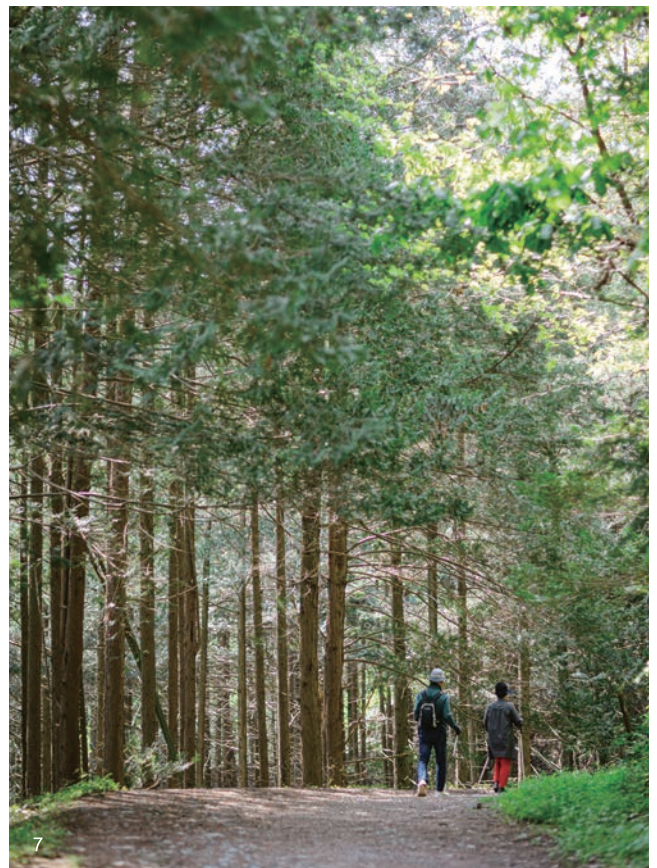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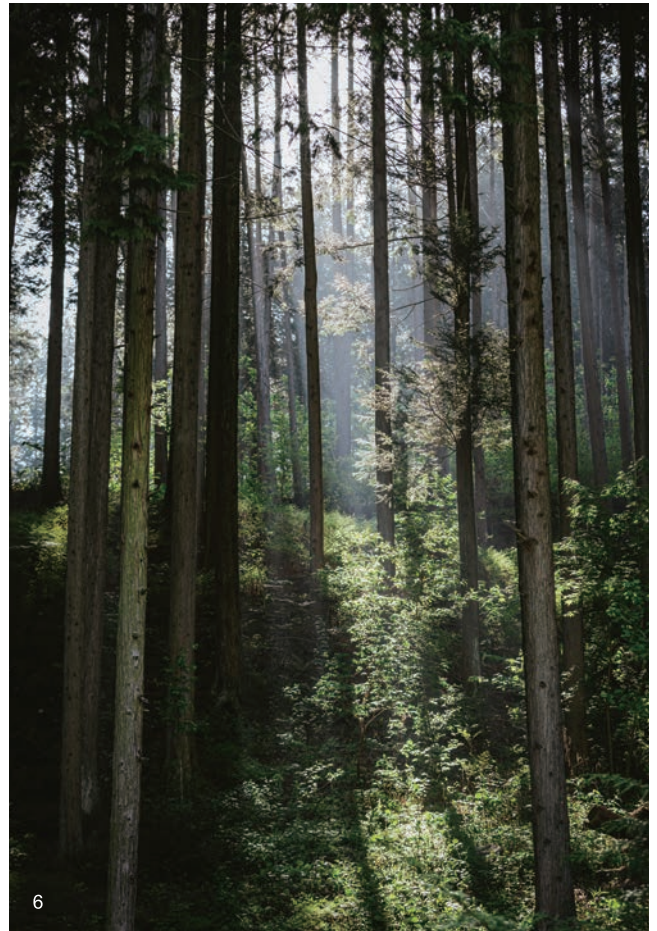
5 쉼터 근처에 마을 주민들이 설치한 유황편백탕. 발의 피로를 풀기에는 그만이다.

6 산책로가 편안하게 숲의 여유를 즐기는 길이라면, 오솔길은 더 깊이 숲의 내밀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다.

7 도시의 경쟁과 소음을 떠나 상큼한 피톤치드향에 심신을 맡기고 하염없이 걷는다.



공기마을의 상쾌한 피톤치드 숲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RUSTIC LIFE

러스틱 라이프

시골 특유, 소박한, 투박한 의미를 가진 러스틱(RUSTIC)과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을 합친 신조어.

날것의 자연과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기면서도 도시 생활에 여유와 편안함을 부여하는 시골향 라이프 스타일을 지칭한다.

최근에는 세컨드 하우스를 두고 주말 시골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팬데믹이라는 산을 넘어 본격적으로 일상 회복에 대한 시동이 걸린 한 해.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 공허함은 한 번에 채워지지 않는 모양이다. 재택근무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은 다시 직장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피로감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최근에는 더욱욱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워라밸이 중요해지고 있고 덩달아 여가를 자연,
혹은 시골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러스틱 라이프가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러스틱 라이프를 소개하고 이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본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촌스러운 것이 가장 힙한 것! 당신을 시골살이로 초대합니다

러스틱 라이프의 등장을 이해하자면 사회적 배경을 먼저 읽어야 한다. 팬데믹이라는 강력한 재난을 함께 겪으면서 사람들은 도시 생활에 피로감을 느꼈다. 전염병이 돌던 시기, 도시는 탈출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집 안에 갇히게 된 사람들은 좀 더 넓은 공간, 자연이 함께 하는 공간을 꿈꾸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의 눈에 시골은 천국이었다. 럭셔리함, 편리함은 없을지 모르지만 편안하고 깨끗한 공기가 있고 함께 할 자연이 있는 곳이었으니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세대에게는 뉴트로 문화 열풍이 불었다. 새롭다는 의미의 뉴(new)와 복고의 레트로(retro)가 합성된 단어다. 새로운 복고 열풍은 시골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언제 어디서나 근무가 가능해진 세대는 노트북만 달랑 들고 생활 터전을 시골로 옮길 수 있었다. '한 달 살기'나 '5도 2촌', '촌캉스'라는 검색어가 눈에

띄게 늘어났던 것도 그 시기다. 한국관광공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2022년 관광트렌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 한 달 살기에 관한 언급량이 14%나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느냐고? 이제 사람들은 다시 도시 생활로 돌아오지 않았겠느냐고? 그러나 문화는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가치가 커져가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더욱욱 말이다.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지자체들은 다양한 5도 2촌 체험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고 다양한 촌캉스 상품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마스크를 벗고 맞이하는 봄, 럭셔리한 호캉스 대신 힙한 촌캉스를, 뻘뻘한 도시 생활 대신 느림의 미학으로 총만한 5도 2촌 라이프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5도 2촌 러스틱 라이프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자연과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교감을 할 수 있는 시골 생활. 최근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자연과 가까운 이도향촌의 삶이 젊은 층 위주로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시골생활을 즐기 위해 일주일에 4~5일 정도는 도시, 2~3일은 시골에서 머무는 5도 2촌, 혹은 4도 3촌 생활에도 도전하는 추세. 도시에서 살면서도 삶의 소박함을 번갈아 누리는 러스틱 라이프에 관심이 있다면 지자체들이 마련한 각종 프로그램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경북, 경남, 강원, 전남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런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한 달 살기 지원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거주비와 연수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지원되는 체류형 체험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지역의 매력을 느끼고 귀농, 귀촌까지도 고려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혹은 지역 관광 홍보를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다. 굳이 귀농, 귀촌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도시와 시골생활을 번갈아 즐겨보는 농촌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은 삶의 풍성함을 위해 서라도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촌캉스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생활관광 13선

촌캉스는 촌+바캉스가 혼합된 말로 촌으로 떠나는 여행을 말한다. 탁 트인 논밭 뷰와 한적한 시골길, 반짝이는 별과 투박한 시골 밥상으로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선물하는 여행인 것이다. 시골 생활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젊은 층들이 촌캉스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촌으로의 여행이 기성세대들에게는 할머니 집 같은 편안한 추억을, Z세대에게는 신기하고 새로운 여행 경험을 선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런 여행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23년 생활관광 13선을 선정, 발표했다. 촌캉스를 표방하며 관광지가 내놓은 프로그램들은 실로 다양하다. 감자 캐기, 김치 담그기, 트래킹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라 숲명, 목공, 감자 굽기, 선상낚시, 전복 따기, 삼 캐기, 모닥불 체험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13곳,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체험하든 다 좋을 것이다. 푸르고 여유로운 자연이 도시 생활에 지친 마음을 위로해줄 테니까, 울어를 특별한 휴가를 원한다면 생활관광 13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기로 하자.

생활관광 13선: 3일 이상 지역에 머물면서 고유의 문화와 역사, 먹거리 등 생활양식을 체험해 보는 체류형 여행상품





@sg_park1017



13 Likes

Rusticlife #외암마을민속촌 #러스틱라이프 #짚신삼기



@happybebe_siyun



58 Likes

Rusticlife #외암리 #5도2촌 #민속놀이



@suya3433



10 Likes

Rusticlife #아산외암민속마을 #장승

미니 인터뷰 | 외암민속마을 이장 이규정님

Q 외암민속마을의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외암마을에는 현재 민박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것도 체험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강정, 전통엿, 고추장, 메주 만들기, 전통의상 입기, 한지를 이용한 나무등 만들기 등을 경험할 수 있죠. 오시는 분들은 농촌, 특히 우리의 전통을 간직하고 살아온 외암마을 방문만으로도 힐링을 하고 가신답니다.



Q 팬데믹 시기 농촌 체험을 위해 찾아오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나요?

A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소한 여행을 즐기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무척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생활에 지친 젊은 청년들이 삼삼오오 또는 동아리 형태로 방문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Q 무엇이 청년들을 시골 생활로 이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예스러운 농촌의 모습, 그 속에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돌담골목길, 소나무정원 등에서 자연과 시골의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외암마을은 수도권과 인접해있는 민속마을이다 보니 하루 이틀 작은 업무들을 가지고 재택근무 형태로 휴가를 오는 젊은이들도 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Q 혹시 외암민속마을에서도 숙박 지원이나 워크ेश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A 요즘 많은 지자체들이 농촌에서 한 달 살기나 워크ेशन 프로그램을 많이 홍보하고 실행하고 있죠. 2022년에는 외암마을도 '전통가옥에서 3개월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았는데 수요자가 넘쳐날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아쉽게도 지자체나 정부 지원을 받아 한 것이라 지속적으로 하지는 못했죠. 다만 외암마을은 가족단위나 친구, 동아리활동으로 1박2일이나 2박3일의 단기간 민박고객을 받고 있고요. 현재 23곳의 민박집이 주말에는 빈 방을 찾기 어려울 정도랍니다.

Q 시골살이나 촌캉스를 처음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은요?

A 농촌, 산촌, 어촌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터전을 일구고 지켜온 우리의 아름다운 자산입니다. 시골살이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시골에 대한 정서나 지역민들을 이해하고 함께 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농촌에서의 불편함, 어려움들을 지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환영받는 촌살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삭한 식감이 풍미를 더하는 죽순 브런치

죽순 주먹밥
&
죽순 샐러드

죽순은 대나무의 어린 순이지만 성장한 대나무에서 볼 수 있는 형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만큼 영양분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게다가 죽순은 아삭한 식감과 풋풋한 향이 좋아 예로부터 사랑받아온 고급 식재료다. 오죽 맛이 좋았으면 고려시대 수필인 <월등사죽루죽기(月燈寺竹樓竹記)>에 '죽순 맛을 한 번 보면 상장도 부수어 먹는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다. 입맛을 돋우고 다양한 영양을 공급하는 죽순으로 맛있는 브런치 식탁을 차려보자.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Studio KENN



Bamboo Shoot Rice Ball

죽순 주먹밥

재료 Ingredients

쌀 360ml, 삶은 죽순 100g,
양념(청주 1T, 간장 1T, 미림 2T),
물 적당량, 소금 한 꼬집,
다시마 1조각, 작은 깻잎 3장
(2인분)

만드는 법 Recipe

- ① 삶은 죽순을 적당한 크기로 썬다.
- ② 작은 솥에 분량의 양념과 썰어둔 죽순을 넣고 약불로 살짝 졸인다.
- ③ 끓어오르면 죽순을 건지고 불을 끈 후 졸인 양념을 따로 받아 놓는다.
- ④ 씻은 쌀과 죽순을 밥솥에 넣고 받아둔 양념과 함께 물을 넣어 맞춘 후 다시마 1조각을 넣고 밥을 한다.
- ⑤ 뜬이 들면 다시마를 건지고 밥을 퍼서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섞어가며 식힌다.
이때 세로로 주걱을 세워 죽순과 밥을 섞으면 밥알이 살아난다.
- ⑥ 충분히 식힌 밥을 먼저 공기에 넣고 굴려 모양을 만든 후 손으로 예쁘게 주먹밥을 만든다.
- ⑦ 다 만든 주먹밥을 작은 깻잎으로 감싸 데코레이션하면 죽순 주먹밥 완성.

/ 취향에 따라 유부를 함께 넣어도 좋다.



죽순 주먹밥
만드는 법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Bamboo Shoot Salad

죽순 샐러드

재료 Ingredients

삶은 죽순 100g, 작은 토마토 1개, 양파 60g, 노란 파프리카 1/4개, 삶은 브로콜리 1/6개, 검정깨 조금, 죽순 간(레몬즙 1t, 소금 한 꼬집, 설탕 1t), 머스타드 소스(레몬즙 1T, 머스타드 1T, 꿀 1T, 식용유 3T, 마요네즈 1t, 소금 기호에 따라) (2인분)

만드는 법 Recipe

- ① 분량의 재료를 잘 섞어 머스타드 소스를 만들어 둔다.
 - ② 삶은 죽순은 죽순의 결이 잘 보이게 채 썬다.
 - ③ 레몬즙 1t, 설탕 1t,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채 썬 죽순을 넣어 간한다.
 - ④ 각종 채소들을 잘 씻고 먹기 좋은 크기로 따로 썰어둔다.
 - ⑤ 준비한 채소들을 접시에 잘 올려 담고 간한 죽순을 올린 후 검정깨로 데코레이션한다.
 - ⑥ 머스타드 소스는 소스 통에 따로 담아내면 취향에 맞게 뿌려 먹을 수 있다.
- 상큼이삭한 죽순 샐러드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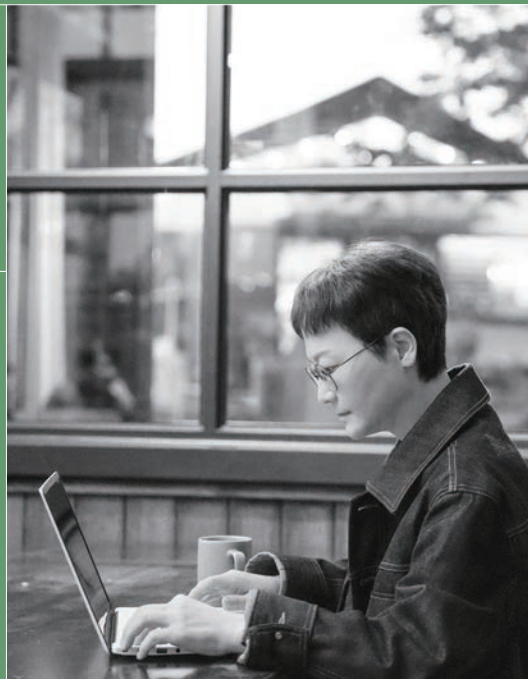
죽순 샐러드
만드는 법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일러스트레이터의 눈으로 재해석한 숲의 세상

단팔소보로

단팔소보로는 ‘은둔자의 몽상을 그리는 초보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자신을 소개할 만큼 겸손한 작가다. 그러나 그녀의 이력과 그림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네이버 그라폴리오에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으며 산림청과도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팔소보로. 작가의 그림에는 항상 숲이나 나무, 꽃이나 화분 등 자연물이 등장한다.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다양한 숲의 그림을 지면을 통해 만나본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단팔소보로



짝사랑하는 그림 속으로

단팔소보로 작가의 대표적인 그림 시리즈는 풋풋한 첫사랑의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짝사랑〉 시리즈다. 그림에는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풋풋한 남녀가 나오기도 하고, 어쩔 줄 모르겠는 감정을 혼자 추스르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늘, 식물이 함께한다. 작가는 어쩌다 〈짝사랑〉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까?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제 짝사랑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림이에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죠? 멋진 그림을 그려내고 싶은 목표가 있지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서 짝사랑이랍니다. 그림에게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는데 그림은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설레는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림 속 주인공은 혼자지만 늘 식물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식물을 키우면 어떤 감정이 자라고 숲에 들어서면 오만가지 감정과 정서가 폭발하는 제 나름의 표현 방법이기도 하고요.”

〈짝사랑〉 시리즈를 보다 보면 애뜻하고 가슴이 저리는 예쁜 감정이 그대로 전해져 온다. 더불어 다정한 식물들, 혹은 푸른 숲을 보며 기분이



좋아진다. 작가는 이런 감정의 시작이 식물이 느리게 싹트고 느리게 자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작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런 짝사랑이라면 영원히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는 작가만의 독특한 시리즈, <동맹>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동서양 동화 주인공들을 불러내 새롭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동맹> 시리즈에서는 그녀만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엿보인다. “서양의 신데렐라나 한국의 공쥐팔쥐는 근본적인 이야기 맥락이 같아요. 많은 동화들에 이런 공통점이 있죠. 저는 이 공통점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계의 동화는 농도가 짙거나 아주 엷기적이거나 공포스러운 민담 형식으로 시대의 어두운 사회 문화를 반영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걸 되살려내니 순수를 뺀 배신, 협상, 분노, 계략 등의 스토리가 가능해지더군요.” <동맹> 시리즈는 아름답기만 한 동화가 아니다. 인간 본연의 어두운 면까지 재해석해 구성한 스토리. 때문에 그림을 보다 보면 한편의 문학을 읽은 것 같은 카타르시스도 느껴진다. 다음 시리즈는 무엇이 나올까? 그녀의 그림 세계가 계속 궁금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숲 예찬론자 작가로 산림청과 협업

그녀는 조금 지칠 때나 복잡할 때 숲과 바다에 자주 간다. 바다에 가면 쓸데없이 쌓였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느낌이고 산에 가면 불필요하게 끓어오르는 것들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혜를 얻고 싶을 때 숲에 가요. 언제나 결론은 ‘끝까지 버티자’이지만요. 하하.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부산 금정산에서 멧돼지에게 쫓긴 일도 있었어요. 그 후엔 주로 둘레길이나 정원, 오름을 가는 중이죠. 2년 정도 쉬다가 올해 1월에는 한라산을 다녀왔어요. 체력이 허락하는 한 1년에 한 번씩은 다녀올 생각입니다.” 단팔소보로는 숲에 가면 반드시 사진을 찍어 자료로 활용한다. 기본 구조와 모양 관찰을 하기 위해서다. 자료조사 과정 중에 그림의 분위기와 스타일이 달라지기도 한다.



2

동서양 동화 주인공들을 불러내 새롭게 스토리텔링한 <동맹> 시리즈.

1

그림에 대한 안타깝고 설레는 감정을 <짝사랑> 시리즈를 통해 표현했다.

이번에 완성한 '숲 다운'이라는 캐릭터도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어느 날 천장에 매달린 식물을 보고 사람의 머리와 비슷하다는 생각, 그리고 그 머리가 은둔형 외톨이에 가까운 스스로의 성향에 꼭 들어 맞는다는 생각을 했었다. 잘 돌봐야 하고 햇빛과 물 이외에 예뻐다, 좋다 같은 애정과 관심의 말을 양분으로 삼으니까, 이렇게 기본 캐릭터 설정을 하고 난 후 자료조사를 통해 세계관과 스토리와 이름을 추가해 나갔다. 그녀가 찾아낸 단어는 '다운'. 좋은 모든 것이라는 뜻의 한글 이름이다. 숲을 붙여 '숲에는 좋은 모든 것들이 있다' 라는 숲 다운이 생겨났다. 이렇게 캐릭터와 스타일이 정해진 후 색연필, 마카, 만화펜, 잉크 펜 등 선의 느낌을 다양하게 시도하며 기본형을 완성해나갔다.

"개인 작업은 제 마음대로 하니까 정해진 스타일도 없고 편견도 없는 편입니다. 섬세한 그림체는 예민한 성격이 반영되어서인 것 같은데요. 요즘은 좀 편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 작가는 제 15차 산림총회 홍보 일러스트 작업을 포함하여 산림청과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다. 총회 홍보 일러스트는 울산 파래소 폭포 가는 길을 찍어두었다가 그 사진을 보고 그린 것이다.

"숲이 폭포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숲이 더 신기해지는 느낌이에요. 거기에 지명, 유래, 전설, 특산물 등을 더하면 숲의 생김새와 분위기가 나름대로 연상이 되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이게 연상이 되면 그 숲 고유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그림을 그려요. 잘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산림청과 함께 하는 일은 이런 개인 작업과는 다르게 섬세한 작업을 기본으로 한다.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있는지를 잘 전달해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상적이기보다는 그에 맞는 작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최근에도 산림청과 함께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새롭게 가고 싶은 곳이 하나 더 생겼단다. 작업과 페어가 끝나면 그곳들을 다녀올 생각이 라고. 그곳에는 물론 식물과 숲이 있을 것이다.



지혜를 얻고 싶을 땐 수시로
숲에 가고 스스로 만든 캐릭터에게
'잘 자라자'라는 주문을 수시로
외운다는 단팔소보로 작가.
그녀의 그림에서 곳곳한 숲향기가
나는 이유를 알 것도 같다.

물과 햇빛, 그리고 예쁘다, 좋다는 말 한마디로 에너지를 얻곤 한다는 작가, 그런 의미에서 식물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작가, 스스로 창조한 캐릭터에게 '잘 자라자' 라는 주문을 수시로 외운다는 작가. 한나절 인터뷰가 끝나고 나니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었다. 왜 그녀의 그림에서 그렇게 곳곳한 숲 향기가 나는지를 말이다. 그녀의 짝사랑이 영원히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그녀가 창조한 그림 세계가 애정과 관심을 먹고 잘 자라나기를 마음을 다해 응원해본다. 🌿

3
은둔자의 몽상을 그린 그림 속에는 항상 숲이나 나무, 꽃이나 화분 등이 등장한다.

4
작가는 제 15차 산림총회 홍보 일러스트 작업을 포함해 산림청과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다.



단팍소보로 작가의 작품들을 다양하게 만나보세요.



숲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산림청 x @illust_soboro

음식도 업사이클링이 되나요?

칼로리는 낮고
영양은 더 좋은
리하베스트(RE:harvest)



“밥 먹었어?” 우리나라에선 쉽게 인사처럼 건네는 말이다. 외국 사람들은 왜 밥 먹었는지 궁금해 하나면서 낯설어 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에게 ‘밥’이 무척 중요하다. 연인과 데이트를 할 때, 친구를 만날 때, 모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무얼 먹을지 정하는 일이다. 오늘 뭐 먹지? 아마 매일같이 고민 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코로나 이후 줄었던 외식 시장도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2023년, 143조 정도로 코로나 이전 규모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그뿐 아니다. 먹는 것도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 ‘먹방’이 글로벌 트렌드가 되기도 했다. 음식을 중심으로 한 문화는 우리나라가 전세계 어느 곳보다 선구적일지도 모른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선구적으로 음식에 새로운 ESG 바람을 몰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푸드업사이클링’ 영역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리하베스트(RE:harvest)’가 그 주인공. 푸드업사이클링이라니, 버려지는 식재료를 다시 먹는 걸까? 먹어도 괜찮은 걸까? 맛은 있을까? 잠깐 생각해도 질문이 계속해서 떠오른다. 이제 대답을 들을 차례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리하베스트

칼로리는 낮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더 높고! 이것이 바로 푸드 업사이클링

‘리하베스트’라는 이름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창업자인 민명준 대표는 말한다. “Reharvest 라는 단어는 ‘재수확하다’라는 뜻으로, 주목 받지 못한 재료에 새로운 가치를 담는다는 의미로 표현이 되죠. 또 다른 의미는 ‘Respect the harvest’, 줄여서 ‘RE:harvest’, ‘우리가 수확한 모든 것을 존중한다’ 라는 의미를 담았어요.” 리하베스트는 맥주와 식혜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인 맥아를 원료로 자체 기술과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다. 국내에서는 맥주와 식혜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의 대부분을 폐기하거나 일부 사료나 퇴비로 사용하는 게 당연한 현실이었다. 하지만 리하베스트는 이것을 기회로 보았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방법을 찾아냈고 자체 개발, 생산한 대체제분 ‘리너지가루’를 만들어냈다.

리너지가루는 일반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식재료로 밀가루보다 더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는 영양. 밀가루보다 30% 낮은 칼로리, 2배 높은 단백질 함량, 그리고 무려 20배 높은 식이섬유 함량을 자랑한다. 두번째는 가성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료를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는 바로 친환경. 리너지가루 1kg은 밀가루에 비해 탄소배출 11kg, 물 사용량은 무려 3.7톤이나 저감한다는 점에서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친환경 가치를 실천할 수 있다. 쉽게 버려질 수 있는 부산물에 영양과 생산 효율, 친환경적인 가치를 불어넣은 진짜 ‘푸드 업사이클링’ 제품인 것이다. 리하베스트는 이런 리너지가루를 중심으로 식재료를 공급하는 B2B 비즈니스와 리너지가루를 사용한 에너지바, 셰이크, 그래놀라 등의 제품을 개발하는 B2C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푸드 업사이클링

#리너지가루



1
국내에서는 대부분 폐기하던
맥주, 식혜의 부산물을 원료로
리너지가루를 만들었다.



2



3

#친환경

#소비자의 인식변화

음식의 변화에서 인식의 변화로, 더 나아가 구조의 변화로

리하베스트를 창업한 민명준 대표는 원래 10년 간 F&B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경영컨설턴트 출신. 많은 제조사들이 '부산물'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친환경'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 본 경험이 있었다. 수많은 국가를 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한 쪽에서는 버려지는 음식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한편, 여전히 아프리카와 같은 곳에서는 '배고픔'이 큰 문제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고, 마음을 움직이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식품 원료의 70%가 폐기되는 게 국내 F&B 산업의 현실이었어요. 개선해야 했고, 개선할 점이 눈에 보였죠. 저희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변화를 보여주면 식량 이슈부터 환경 이슈까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명준 대표의 말이다. 이런 명확한 비전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처음에는 난관에 부딪칠 수 밖에 없었다. 사업 초기, 푸드 업사이클링 비즈니스가 워낙 생소하다 보니 투자자를 설득하는 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규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무척 까다로웠다고 한다. 특히 맥주 같은 경우는 환경부, 식약처의 허락은 받았으나 국세청이 문제였다. 주세법상 주류 제조장에서는 주류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산물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 실마리는 '식혜'에서 찾을 수 있었다. 맥주와 다르게 환경부와 식약처 허가만 있으면 제품 가공을 할 수 있었고 제품 생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식혜 부산물 사례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더 나아가 2020년 7월 해당 법안의 개정으로 맥주 부산물까지 길이 열리게 되었다. 민명준 대표는 그때를 기억하며 말한다. "하나의 사례가 중요하더라고요. 설득이 더 쉬워졌거든요."

그는 아직 사람들에게 푸드 업사이클링이 낯설던 2019년부터 고독한 길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한 끝에, 2021년 50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받아 국내 최초 푸드 업사이클링 생산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다. "옛날에는 푸드 업사이클링이라고 말하면 다들 이해를 못하셔서 개념부터 하나씩 설명해야 했어요. 어떤 점이 좋은 건지 기초부터 알려드리면서 설득을 해야 했죠. 하지만 요새는 푸드 업사이클링을 한다고 말씀드리면 무엇인지 금방 아세요. 가치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다는 걸 느껴요." 민명준 대표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를 느낄 때를 사업을 하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으로 꼽았다.

2

리너지가루는 밀가루보다 30% 낮은 칼로리, 2배 높은 단백질 함량, 20배 높은 식이섬유 함량을 자랑한다.

3

리너지가루로 만든 그레놀라와 리너지바, 프로틴볼.

4

리너지가루 1kg은 밀가루에 비해
탄소배출 11kg, 물 사용량은
무려 3.7톤이나 저감한다.

5

자체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원
순순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해가고
싶다는 민명준 대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을 하는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해서

‘순순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명준 대표. “항상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사업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꿈이자 회사의 비전이라고 말한다. 리하베스트가 생각하는 비전과 미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계속해서 더 좋은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이다. 푸드 업사이클링 영역이 예전에 비해 인식이 달라지고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 민명준 대표는 단순히 환경에 좋다는 것 말고도 더 맛있고 몸에도 좋아서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인식이 자리잡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바라는 순순환이 현실이 되고,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가 가까워질 것이다. 리하베스트가 좋은 사례가 된다면 설득은 훨씬 쉬워질 테니까.

‘비건 지향적 삶’이라는 트렌드가 있다. 개인의 식습관을 한번에 비건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중의 하루, 혹은 비정기적으로 비건 옵션이 있을 때 비건 메뉴를 지향하는 삶을 뜻하는 말이다. 이처럼 이제는 꼭 어떤 변화가 나의 모든 일상을 지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다. 옳다고 생각한다면 느슨하게 지지하고 가볍게 실천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인식의 변화는 가벼운 한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순간에 고기를 끊어버리거나, 모든 옷을 업사이클링 브랜드로 바꾸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환경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환경을 생각하며 나아갈 것이라면, 우선은 ‘푸드 업사이클링’이라는 시장이 있다는 걸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누군가 ‘오늘 뭐 먹을까?’ 라고 물었을 때 ‘푸드 업사이클링이라는 거 알아?’ 라고 말을 건네며 한발 더 나아갈 수도 있고. ☺



쉽게 버려질 수 있는 부산물에
영양과 생산 효율, 친환경적인
가치를 붙여넣은 진짜
푸드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다.

#자원 순순환

#새로운 희망



5



우리가 산불을 막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산림청 산불진화대의 활약상도 만나보세요!

기후위기 때문에 올해 산불은 그 발생량에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4월 초순에는 8일간 매일 10건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3일(4.2~4.4)
동안은 무려 51건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죠. 사망감을 가지고 진화에 뛰어든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기에 다행히 산불은 초기에 진화되었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 또 불이
날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나날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산불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산림청 산불진화대원들, 그들이 산불을 잡기 위해 펼치는 노력, 산불을 막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생생하게 담아 보겠습니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1

1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탓에 산불은 최근 몇 년
들어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다.

산불은 최근 몇 년 들어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자료를 보면 기온이 1.5도 오르면 산불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는 산불기상지수(FWI)가 8.6%나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상고온'과 '건조기후', '강수부족'이 한꺼번에 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산불 발생이 늘어가고 있는 이유는 최근 산림 100m 이내에 건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산림과 가까운 주택과 건물 등의 화재가 일어나면 산불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 불들이 하필 건조한 기후와 만나 견잡을 수 없는 큰불로 번지게 되는 거죠.

산불진화를 위한 산림청의 노력들

산불 발생을 억제하고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산림청은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을까요? 산림청은 최근

산불 진화를 위해 다양한 신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ICT 기반의 감시체계를 확보하여 24시간 실황으로 불씨를 감지하고 있고요. 2만 2천여명의 산불 감시인력과 인화물질 제거반을 통해 산불을 감시하고 취약지역 인화물질을 사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요한 지점에 산불 확산을 막아주는 산불 지연제, 리타던트도 활용하고요. 진화드론을 통해 에어로졸을 뿌리기도 합니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최신 장비도 빈틈없이 갖춰가고 있는데요. 전국 12개 권역에 산림헬기 48대, 임차헬기 74대 등 총 195대 헬기를 활용하여 유사시 3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험준한 산악 지형에 특화되고 진화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기존 진화차량의 3.5배, 3,500 리터까지 물을 실을 수 있어 진화 효과가 큼니다.



2

3

산불, 그 최전선에 선 산불진화대원들

이번에는 산불이 났다고 가정해볼까요? 1분 1초가 가까운 시간, 산림청은 어떤 시스템으로 산불 진화작업을 펼칠까요? 산불을 진화하는 산림청 소속 조직은 3곳인데요.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맡겨진 역할에 따라 현장에 바로 투입됩니다.

먼저 104명으로 이루어진 공중진화대는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관리소 소속인데요. 이들은 헬기를 타고 절벽, 암석지대 등에 접근하여 로프를 타고 저지대로 내려와 산불을 꺼요. 주로 산불 머리 부분에 투입이 되어 주불을 직접 진화하죠. 이와 동시에 번지는 속도가 느린 횡진 방향으로서는 방화선을 구축하는 역할을 해요. 산불관련 특수훈련 등을 받은 최정예 진화팀입니다. 어때요? 믿음직하죠?

2023년 현재, 435명으로 이루어진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소속이고요. 이들은 험준지, 야간산불 진화에 직접 투입됩니다. 주로 정상부의 산불을 진화하고요. 바로 이들이 산불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야간 진화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입니다. 깊은 밤

화력이 강한 산속까지 20kg가량 되는 진화장비를 매고 들어가 산불과 사투를 벌이는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니 새삼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림청 1,405명, 지자체 8,199명으로 이루어진 조직인데요. 이들의 임무는 산불현장에 최초로 도착하여 초동진화를 하고, 산불이 재발화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있기에 산불은 더 번지지 않고 진화되는 거네요. 무섭게 번지는 산불을 진화한다는 것은 소명 의식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야간, 대형, 재난성 산불 진화인데요. 뜨거운 불길 때문에 생명에 대한 위협도 느끼게 되고요. 직접 산에 올라가 불이 꺼질 때까지 진화작업을 하기 때문에 김밥 같은 가벼운 음식으로 허기를 대충 때우는 경우도 많답니다. 거센 불길과 연기 속에서 사명감으로 불을 끄러 뛰어다니는 산불진화대들, 험준한 산을 타며 무섭게 번지는 산불과 맞서 싸우는 이들의 노력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산불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산불진화대 여러분들의 노력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

산림청은 산불진화를 위해 최신 장비와 시스템을 빈틈없이 갖춰가고 있다.

3

험준한 산을 타며 무섭게 번지는 산불과 맞서 싸우는 이들이 산불진화의 숨은 영웅들이다.

4

산악지형에 특화되고 진화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도 도입했다.



산불을 막기 위한 간절한 부탁

우리나라의 산불은 자연적인 발생보다 순간의 실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년 11월 15일에는 산림 내 100m 안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법령이 바뀌었는데요. 과태료 부담은 둘째 치더라도 우리의 실수로 일어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산림 및 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자제하고 불씨관리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임도의 확충입니다.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해서는 공중과 지상의 입체적인 진화가 필요한데, 현재는 임도가 부족하여 산불현장까지 지상인력이 접근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상진화인력 및 장비의 원활한 투입을 위해 임도의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산불로 망가진 숲을 되살리는 데는 최소한 1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5월 15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끝났지만 잠깐의 방심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푸른 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예방이니까요. 숲

거센 불길과 연기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불을 끄러 뛰어다니는
산불진화대원들, 그들의 노력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독립영화로 숲의 소중함을 되새기다

내 방에, 혹은 극장에
앉아서 즐기는 숲 다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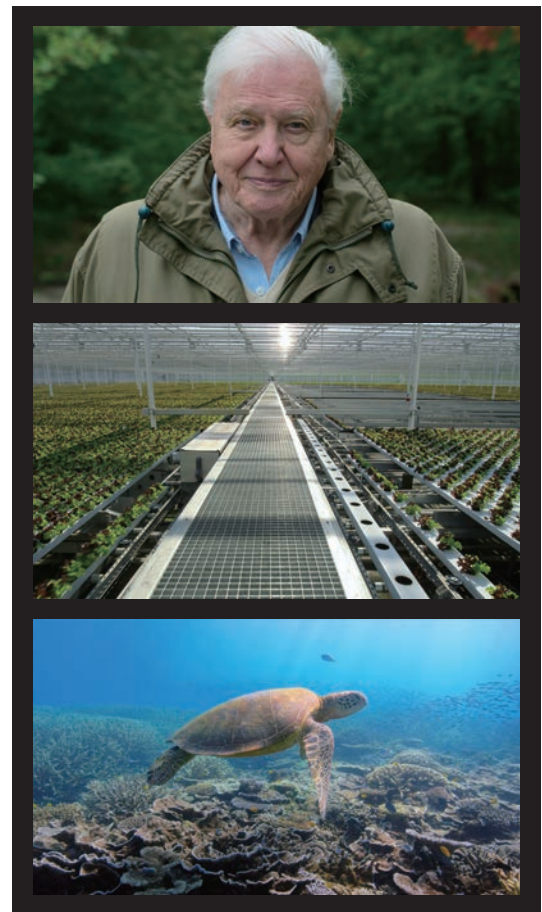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자료제공 Netflix,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겉으로는 언제나 경이롭고 평화로워 보이는 숲. 우리는 과연 숲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자연의 신비를,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의해 겪을 수밖에 없는 자연의 시련을 우리는 제대로 보고, 알고 있을까? 다큐멘터리와 독립영화들은 숲이라는 내밀한 시공간에 카메라를 들이댔으로써 평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숲을 좀 더 깊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내 방에 앉아서, 혹은 극장에 앉아서 즐기는 숲 다큐멘터리와 독립영화들을 소개해본다.

우리의 지구를 위하여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영화의 대가, 데이비드 애튼버러가 제작하여 2020년 넷플릭스에 개봉한 <우리의 지구를 위하여>. 가슴 아픈 원전사고가 일어났던 체르노빌에서 시작하고 끝맺는 이 다큐는 인간이 지구 환경에 미친 영향을 단기적으로 보여주며 무분별한 환경 파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압도적인 스케일, 경이로운 영상미로 자연의 장관과 공존의 철학을 담은 대작, <우리의 지구를 위하여>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감동과 함께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되살려보시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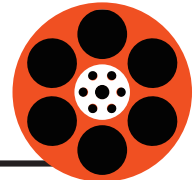
© Netflix





제 20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환경영화제이자 세계 3대 환경영화제 중 하나인 제20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6월 1일부터 7일까지 메가박스 성수에서 열린다. 산림청이 후원하여 1관을 산림브랜 드관으로 운영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126개 나라의 출품작 중 예선 통과작을 가려 일주일간 상영할 예정이다. 또한 6월 3일에는 산림 관련 영화를 3편 집중 상영하고 영화관람 후에는 산림 청장과의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숲을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무의 숨겨진 삶

2020년 제작된 독일 외르그 아돌프 감독의 다큐멘터리, 〈나무의 숨겨진 삶〉이 제 20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서 상영된다. 이 작품은 2015년 페터 볼레벤의 베스트셀러, '나무수업'을 원작으로 한 것으로 숲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나무는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나무에게도 기억과 사회생활이 존재할까?'. 다큐멘터리는 이런 질문들을 살살이 살피며 우리를 비밀스러운 숲의 세상으로 안내한다. 나무의 연대와 결속에 대해 알고 싶다면, 또 그들이 어떻게 숲을 이루며 사는지 알고 싶다면 이 다큐멘터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숲속 우체통

김은경 대구시 달서구



조한석 경기도 의정부시



박효리 서울시 서대문구



〈숲의 만남〉을 통해 농부가 된 뮤지션, 루시드 폴 기사를 흥미롭게 보았어요. 10년 가까이 제주에서 농부로 살면서 나무와 숲이 자신의 진정한 친구이자 커다란 축복임을 알게 되었다는 그의 말을 통해 여유로움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노래가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오름에서 바람소리, 새소리 등 자연과 교감하면서 음악적인 영감을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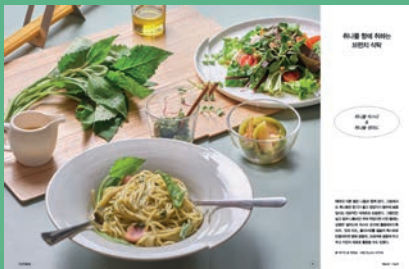
안 그래도 새봄을 맞아 집안 분위기를 바꿔볼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트렌드의 숲〉 칼럼에 소개된 그린테리어 기사가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초록 식물과 초록 컬러를 이용하여 신뜻하고 생기 있는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사를 다시 한 번 되짚어 읽고 잘 숙지하여 초록초록한 새봄에 어울리는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보아야겠습니다.

SNS에서 본 오래된 한국 사진에서는 산들이 벌거숭이더군요. 많이 놀란 기억이 있는데 이번 국토녹화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내용을 읽고 최근의 울창한 모습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궁금하고 계속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환경이 오염된 요즘, 모두가 힘을 합쳐야 소중한 자연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낍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산림청 <Magazine 숲>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Magazine 숲>을 읽고 난 후
인상 깊었던 기사에 독자 엽서, 이메일(magazinesup@korea.kr)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매 호 여섯 분의 독자 의견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박지현 대구시 달서구



<브런치@숲>의 '취나물 향에 취하는 브런치 식탁'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저 데치거나 생으로 먹을 줄만 알았지, 이렇게 색다르게 해서 먹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또 하나 배워갑니다. 아이들은 취나물 향을 싫어하는데 파스타를 해서 주면 잘 먹을 것 같아요. 생각을 조금 바꾸면 무궁무진한 맛의 세계가 펼쳐지네요. 취나물의 이유 있는 변신을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향숙 경기도 오산시



<콘텐츠의 숲>에 실린 '가고 싶었던 숲, 전시를 만나다' 기사에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소개가 눈에 띄어 설렘을 감출 수가 없네요. 자연 생태계의 보고, 순천. 어우러진 생명들과 그들이 만들어온 역사를 보고 있다면 순천은 도시라기보다 오랫동안 가꿔진 거대한 정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한 번 방문하여 10년 만에 열리는 정원 축제를 즐기고 싶습니다.

채유진 대구시 동구



저에게 이번 호 최고의 기사는 <나를 부르는 숲> 경남 양산 원동 매화숲이었습니다. 우선 매화가 알리는 봄소식에 눈이 호강했고, 겨울을 이겨낸 그 힘에 다시 한 번 놀랐으며, 그윽한 향과 지조를 '梅一生寒不賣香', 매화는 한평생 추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읽는 것마다 오감을 자극하는 글로 수놓은 매거진 숲은 숲과 관련한 웹진으로 손색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숲의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두 달간 산림청에 있었던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새정부 출범 1주년, 산림분야 주요 성과 발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산림청은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먼저 소득수준이 낮은 임업인들을 지원하는 임업직불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했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활성화, 도시숲 조성사업, 국가숲길 확대 및 동서트레일, 목재친화도시 조성에도 힘을 쏟았다. 앞으로도 산림청이 국민과 함께 열어가 갈 산림르네상스시대를 기대해주시기 바란다.

산림녹화기록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대한민국 산림녹화 역사를 담은 '산림녹화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가결로 통과했다. 산림녹화기록물은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재검토를 거쳐 2024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의 사전심사와 2025년 상반기 최종심사에 오를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인류의 기록으로 영구히 기억되기 바란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대한민국 민간정원' 안내서 발간



산림청은 전국에 등록된 민간정원을 권역별로 담아낸 '대한민국 민간정원' 안내서를 발간했다. 민간이 조성한 정원을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자 시작된 민간정원 등록제는 등록 개소만 전국 98개 정원에 이른다. 이번 안내자료 제공으로 전국의 정원여행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QR을 통해
민간정원 안내서를 만나보세요.



전북 무주 김웅씨 '이달의 임업인' 선정



전북 무주에서 청정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김웅씨가 2023년 5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되었다.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13년 전 무주로 귀산촌한 그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임업을 시작했다. 현재는 고사리, 취나물, 산미늘, 표고버섯, 밤 등 5개 품목을 케이-포레스트푸드(K-FOREST FOOD) 사용 승인 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귀산촌을 꿈꾸는 사람들의 좋은 멘토로도 활동하고 있다.

Glue this area and fold to cut out and use the postcard.



May + June
2023



건강의 스위치를 켜고
삶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세요.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

<내 가슴은 뛰누나>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뛰누나.

내 어린 시절에도 그러했고

어린이 된 지금도 그러하기를

나 늙어져도 그럴 것이거늘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둬가소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원컨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경건함으로 이어갈진저.

5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받는 사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대변인실 <매거진 숲> 편집부 앞



2023 5+6월호 독자의견

이름 _____

1.이번 호를 읽고 난 소감을 적어주세요.

전화 _____

이메일 _____

2.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3.이번 호에서 가장 아쉬웠던 내용과 이유는?

•
매월 말일까지 엽서 또는 이메일
(Magazinesup@korea.kr)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 숲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4.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쩌면 우리의 매일이 숲이 아닐까요?

숲을 먹고, 숲에 앉고, 숲에 담고, 숲을 읽고
그렇게 우리는 숲에서 삽니다.

당신의
매일이
‘
숲
’
입니다

숲이 희망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EVERYDAY WITH FOREST